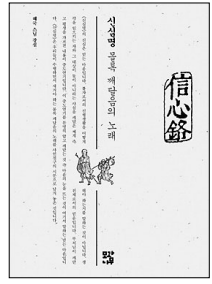


# '신심명'은 환희와 발심의 언어

## 신심명

혜국 스님 강설 | 모라나루 펴냄 | 2만 2천원



〈신심명〉은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중국 선종의 제3대 조사인 승찬(僧璨: ?-606) 대사가 지은 선어록이다. 여덟 자씩 하면 73구절로 584자의 짧은 글이지만 불교의 모든 가르침과 선의 근본이 모두 이 글 속에 담겨 있다. 즉 팔만대장경의 심오한 불법 도리와 선불교의 1700 공안의 격의도리가 모두 이 속에 포함됐다고 해서 중국에 불교가 전해진 이후로 '문자로서는 최고의 문자'라는 극찬을 받는다. 승찬 대사는 〈신심명〉의 짧은 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도와 연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일관한다. 이것이 한 마디로 끝나지 않고 74구절에 이르기까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 말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중요성의 이유로 〈신심명〉을 강독하거나 해설한 책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글야 혜국 선사는 누락된 한 구절까지 포함해 74구절 592자를 새롭게 강설해 〈신심명·물록 깨달음의 노래〉를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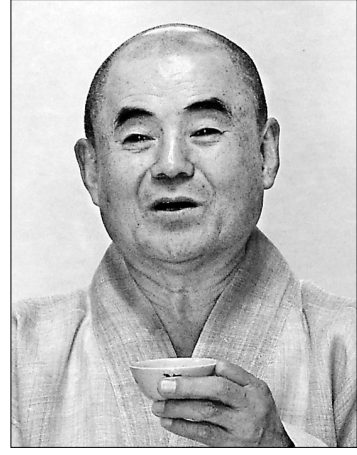
저자는 후학들을 위해 자신이 경험한 공부 과정과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자세하고 쉽게 강설했다. 책 속에는 수십안거를 성만한 선승담게 잡시라도 한 눈 팔거나 글이나 말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존엄함이

녹아있다.

그렇다면 혜국 스님(사자)이 〈신심명〉을 공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이 책에서 "제가 본 철학이나 습득 지식이 얼마되지 않지만, 모두 우리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이었다"며 "하지만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일체 우주 만물이 마음의 그림자일뿐 고정된 실체가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 이견 더욱 어렵다는 생각이 〈신심명〉서 강조하는 중도 연기를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충주 석종사서 하안거 수행 중인 혜국 스님은 7월 2일 잠시 점심 공양 시간을 내서 〈신심명〉이 전하는 가르침을 들려줬다. 혜국 스님은 "〈신심명〉은 부처님 가르침인 '중도'에 대해 아주 쉽고 간결하게 보여준다"며 "내용은 첫 구절인 '지도무난(至道無難)'에 모두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의 말은 이어졌다.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말을 진정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기운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대자연에서 에너지를 빌려서 그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본질에서 보면 나와 내가 모두 하나이지요. 결국 우주 전체가 나와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완벽한 도라고 합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갈등과 분쟁이 없으며 상생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신심명〉의 핵심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책 속에서 저자는 말한다. "부처님은 '내 몸이라고 하는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찌 남이 내 마음대로 되겠느냐.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생각을 바꾸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환경



### 승찬대사가 지은 73구절 짧은 선어록 중도와 연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일관 누락 한구절 포함 74구 새롭게 강설 첫 구절 '지도무난'에 모두 내포돼

에 적응해야지 환경이 나를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 자신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남이 바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혜국 스님은 〈신심명〉에 살아 숨쉬는 삶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가 있기에 부처도 있고 신이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부처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내가 신이 필요하다면 신은 내가 필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신은 받들어야 하는 내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신이니 부처니 하는 이름 지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살아 있는 부처가 되고 살아 있는 신이 됩니다. 활발하게 살아 숨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님은 이 중도를 "벽을 허물어 버린 상태로 분별 속에서 분별을 떠난다"는 말로도 표현했다. 즉 "허공에 있는 인간도 허공이 보이면 살 수 없습니다. 허공 속에 있으면서 허공을 떠났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슬픔의 본질을 보면 슬픔을 떠나게 되고, 화를 내면서도 화내는 본질을 보면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신심명〉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책 속에서 이렇게 전한다. "생각에서 놓아버리면 정신을 괴롭힐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어서 정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는 내 자신이 과거를 붙들면서 놓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사를 붙들고 환영과 싸웁니다.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심이 없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 나다 너다 하는 분별이 돌아 아닌 세계를 중도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백 번 알아봐도 중도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심명〉을 바로 보려면 먼저 발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심명〉은 발심의 언어이며 깨달은 이의 환희에서 나오는 순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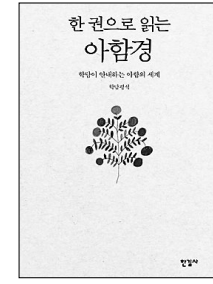
한편 저자인 혜국 선사는 1962년 해인사로 출가해 일타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경봉, 성철, 구산 스님 회상에서 수행정진 하면서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한 이시대의 선승이다. 그동안 〈신심명〉 강설은 원문에 충실해 그 의미를 살피고자 했다. 혜국 선사의 강설은 그것을 넘어 1400년 전의 언어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고, 우리 삶이 어떠한지 보여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붓다의 육성에 가장 가까운 말씀 ... 방대한 분량 한 권으로 체계화

### 한 권으로 읽는 아함경

학담 스님 지음 | 한길사 펴냄 | 2만 2천원



이 책의 모태는 학담 스님의 전작 〈가려 뽑은 아함경〉과 〈학담평석 아함경〉이다. 어려운 한 문투로 경을 해석한 〈가려 뽑은 아함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담평석 아함경〉의 방대한 분량을 한 권에 체계적으로 담아 독자에게 더 쉽게 다가가는 입문서다.

이 책은 〈학담평석 아함경〉의 가장 큰 장점인 '삼보의 체제로 아함경을 살펴본다'는 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네 아함, 다섯 니카야로 방대하게 전해지던 〈아함경〉 내용을, 삼보의 관점, 즉 불(佛), 법(法), 승(僧)으로 바라본다. 책 전체를 '귀명장' '불보장' '법보장' '승보장' 이라는 네 개의 체제로 나누고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아함'을 완전히 해체해 재조합했다. 각 장의 도입에 '이끄는 글'을 붙이고, 절의 시작에 다시 소개글을 붙였다. 본문에서는 경의 제목을 로 표시하고, 스님의 해설을 통해 경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 1장 삼보의 체제로 〈아함경〉 해설서를 펴내며 〈대의장〉에서는 혼란의 시대 〈아함경〉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짚어주고, 아함의 기본 사상과 삼보 중심으로 불교를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불교를 '붓다의 가르침' 이라고 소박하게 정의할 때에도 불교에는 '진리의 자각을 통해 가르침을 전하는 붓다'와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아들여 함께 진리의 길 걸어가는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곧 불교는 붓다 다르마 상가 이 세 가지 법의 보배를 기본 요건으로 해서 출발한 종교인 것이니, 붓다 다르마 상가 삼보야말로 불교의 역사적 현상형태인 것이다."

제 3장 진리의 몸 지혜와 자비의 완성이신 붓다 (불보장)에서는 불보(佛寶)이자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 붓다에 대해 말한다. 제 4장 세계의 실상과 여래의 가르침 (법보장)에서는 붓다께서 가르친 진리, 다르마를 소개한다. 이른바 연기법(緣起法) 또는 연기론(緣起論)으로 정식화한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실천을 통해 니르바나에 이르는 경을 보인다.

"갈대가 홀로 서 있지 못하고 서로 의지하여 비로소 설 수 있듯, 존재는 제 홀로 발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법(諸法)이 서로 어울려 존재의 자기 동일성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존재 자체에도 그렇다 할 자기 실체가 없지만(我空) 서로 어울리는 여

러 법들도 원자적인 요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다(法空).

존재는 여러 가지 법이 어울려 일어나므로 실로 있음이 아니지만 존재는 여러 가지 법이 서로 어울려 일어나므로 아주 없음도 아니다. 이처럼 있음이 있음 아닌 있음이라면 없음은 없음 아닌 없음이니, 존재의 실상을 실답게 보아(如實知) 있음과 없음에 모두 머물지 않을 때 여덟 가지 바른 길 그 해탈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

제 5장 평등과 해탈의 공동체 (승보장)에서는 붓다의 말씀을 따르는 상가, 즉 출가교단과 재가대중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정리한다. 상가는 불교를 믿는 불교도들만의 공동체를 넘어 바른 삶의 길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공동체이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자체임을 보인다. "상가는 출가대중인 비구 상가와 비구니 상가, 재가대중인 우파사키와 우파사키의 사부대중으로 이루어진다. 상가는 진리 안에서 늘 기뻐하고 서로 화합하며 진리를 모르고 헤매는 세간 못 살들의 복

### 삼보의 체제로 아함경 살펴

### 각장 도입에 '이끄는 글' 붙여

발이 되고 길잡이가 된다. 상가는 스스로 화합하며 늘 보디에 나아가고 중생 세간에 헌신하는 공동체이다."

"아함"은 붓다와 성문제자의 대화를 기록한 초기 경전으로, 모든 불교경전의 시작이자 가장 참뜻을 보이는 글이다. 대승의 교설에 비해 완숙하게 발전되지 못했다고 여겨 그동안 한국사회가 홀대했지만, 붓다의 육성에 가장 가까운 말씀이기에 가장 정확하고 큰 진의가 여기에 들어 있다.

김주일 기자

### ▲아함경이란 무엇인가

'아함' (阿含)이란 산스크리트어 '아가'의 소리 율음으로, '전해온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아함경〉은 초기 불교의 경전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붓다의 제자 가운데 많이 들음(多聞)으로 으뜸인 아나다가 기억한 붓다의 생생한 육성의 법문을 500장로가 합송(合誦)의 형식으로 공인하여 기록한 최초의 경전이다. 대장경(大藏經), 즉 학담 스님의 우리말 표현에 따르면 "많은 가르침의 꽃간"에서 초기 불교 교설인 네 가지 아함을 아함경이라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이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남은 붓다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불교 교설은 남전과 북전의 두 행로가 있다. 북전은 산스크리트어 및 한자 문화권, 남전은 스리랑카·미얀마·타이 등의 당시 속어인 팔리어로 기록된 경전이다.

## "붓다는 바로 우리 내면에, 피안은 우리 삶 속에 있다"

### 붓다와 다시 시작하는 하루

불보장 지음 | 평안 펴냄 | 1만 4500원



2500년 전 인류는 위대한 성인을 만났다. 그는 바로 붓다, 부처이다. 그는 자신이 먼저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을 마음으로 설득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다. 붓다는 인간 각자의 존엄성을 긍정하면서 그 무엇에 끌려다니지 말고 "너 자신 스스로 깨어나라"고 일깨웠다.

붓다의 지혜 속에는 총돌보다는 타협, 독선보다는 합의, 독점이 아닌 상생의 통찰력이 가득하다. 지금 우리사회에 무엇보다 필

요한 것은 바로 붓다의 지혜일 것이다. 물질 만능의 가치관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많은 병폐를 앓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그 병폐의 폐해가 사회를 뚫고 하고 있다. 그런 만큼 나누고 베풀고 수도하는 삶을 강조했던 붓다의 가르침은 그러한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여러 경전에서 가르쳤던 위대한 붓다의 지혜를 1년 365일 공손히 듣고 들은 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붓다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내면에 이미 붓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일깨우는 자만이 붓다를 만나게 될 뿐이다. 1년 365일 매일매일 붓다의 가르침을 읽다 보면 내면의 붓다를 깨워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피안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완전한 자유를 구가한 붓다는 다른 모든

이가 자신처럼 완전한 자유인이 되길 바랐다. 제자들이 스승인 자신에게조차 의지하지 않도록 "너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가르쳤다.

붓다 가르침의 핵심은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깨달음을 얻으라는

### 붓다의 지혜 1년 읽을 수 있게 구성 "자기 자신이 깨달음을 얻으라"

것이다. 그것은 진리는 밖이 아닌 우리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365일 매일 읽도록 구성되어 있어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러한 내면에 존재하는 진리를 일깨우고 찾아가도록 이끌어 준다. 그것은 끊임없이 갈구하고 정진할 때

에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경쟁으로 인해 상처받고 지친 우리에게 각자의 소중함과 우리 모두는 우주의 한 부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 삶과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서로 경쟁하고 단절된 가운데 소외를 느끼고 적대시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삶의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자신의 소중함과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개인과 사회의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의식을 심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무간지옥과 피안은 다음 생애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애에서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www.withbuddha.co.kr

##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 위드분다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